

CNN “오징어 게임” 정말 끝내준다”

미국 CNN은 이 넷플릭스 전세계 TV부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대해 “정말 끝내준다.”고 평가했다.

CNN은 지난 29일 “오징어 게임”은 무엇이고 왜 사로잡는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넷플릭스의 최신 히트작(오징어 게임)은 정말 끝내준다.”고 보도했다. CNN은 드라마 흥행은 한국 영화 <기생충>에서 드러났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전했다. 또 게임의 패자가 살아남지 못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공포 시리즈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시청자들이 비영어권 드라마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트렌드와 맞물리며 ‘오징어 게임’이 미국 넷플릭스 인기 순위 1위에 올랐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미국 할리우드 영화와 방송계 소식을 다루는 전문 매체



▲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게임' 포스터. 포스터:넷플릭스

데드라인은 “오징어 게임”이 한국 오리지널 드라마의 이정표를 세웠다.”며 “미국 시청자들 사이에서 비영어 콘텐츠 인기가 커지면서 <오징어 게임>이 혜택을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게임 등 한국 아이들이 옛날부터 즐겨온 놀이가 서바이벌 게임의 소재로 등장한다.

데드라인은 “넷플릭스 미국 가입자 중 97%가 지난해 적어도 하나 이상의 비영어 작품을 시청했다.”며 “2019년부터 올해까지 미국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은 200% 이상 극적으로 뛰어올랐다.”고 전했다.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린 작품이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달고나 뽑기, 줄다리기, 구슬치기, 다리 건너기, 오징어 게임 등 한국 아이들이 옛날부터 즐겨온 놀이가 서바이벌 게임의 소재로 등장한다.

이병헌, 아시아필름어워즈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 수상...한국 배우 최초

배우 이병헌이 아시아필름어워즈에서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을 수상한다.



▲ 이병헌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필름어워즈는 홍콩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도쿄국제영화제가 아시아영화 발전을 위해 지난 2013년 힘을 모아 설립한 아시아필름어워즈아카데미(AFAA)에서 매년 개최하는 시상식이다.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은 아시아 영화와 문화 전반에 걸쳐 뛰어난 성취를 거둔 아시아영화인에게 주어지는 상으로 올해는 배우 이병헌이 한국 배우로는 최초로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병헌은 지난 1991년 데뷔해 ‘내부자들’ (2015)로 청룡영화상 등 국내 주요 시상식의 남우주연상을 휩쓸었고, 2015년 아시아 배우 중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시상자로 참석했다. 할리우드 영화 ‘지아이

조-전쟁의 서막’ (2009) ‘매그니피센트 7’ (2016) 등에 출연했다.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이사장은 “이병헌은 한국과 아시아를 뛰어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며 영화인들과 관객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배우다. 맡는 배역마다 과감하고 획기적인 변신을 꾀하는 프로페셔널함으로 출연만으로도 영화의 품격을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연기자”라며 “그에게 아시아영화엑셀런스상을 시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15회 아시아필름어워즈는 지난해에 이어 다시 한번 부산국제영화제와 함께한다.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기간 중인 오는 10월 8일 오후 8시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에서 시상식이 진행되며, 유튜브와 네이버를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이다.

BTS, 11·12월 미국서 오프라인 콘서트



▲ 방탄소년단(BTS), 사진-빅히트뮤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오는 11월 미국에서 2년 만에 오프라인 콘서트를 재개한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지난 28일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BTS 퍼미션 투 댄스 온 스테이지 - LA’ BTS PERMISSION TO DANCE ON STAGE - LA) 오프라인 공연을 개최한다고 공지했다.

공연은 로스앤젤레스(LA) 소파이 스타디움(SoFi Stadium)에서 11월 27·28일과 12월 1·2일 총 4회에 걸쳐 열린다.

BTS가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으로 팬들과 직접 대면하는 공연을 여는 것은 2년 만이다. 2019년 10월 말 서울 잠실올림픽주경기장에서 열린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월드투어 파이널 공연이 이들의 마지막 오프라인 콘서트였다. 당초 지난해 4월부터는 ‘맵 오브 더 솔’ 월드투어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팬데믹 사태를 맞으며 전면 취소한 바 있다.

소속사는 이번 LA 공연에 대해 “코로나19로 대면 공연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가 및 지역별 방역 방침과 현황을 두고 대면 공연 기회를 모색해 미국에서 공연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마련한 소중한 자리인 만큼 아티스트와 팬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롭고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연장인 소파이 스타디움은 지난해 개장한 미국프로풋볼(NFL) 로스앤젤레스 램스와 로스앤젤레스 차저스의 홈구장으로, 수용 인원은 약 7만 명이다.

★ 싸인 플러스 ★

간판

LASER ENGRAVING

★ 명찰 ★
1"X3" W/ PIN
\$5.50 +TAX
W/ THIS COUPON

★ 싸인 플러스 ★

트로피

세리토스점

SIGNPLUS

SAME DAY SERVICE AVAILABLE

TROPHY & ENGRAVING

★ OPEN MON-SAT ★
17615 PIONEER BL., ARTESIA, CA 90701

FAX: (562) 809-3878
SIGNPLUS123@YAHOO.COM
(562) 809-0448